

NOROO

NOROO

Spring. 2015



Spring. 2015

바
람。



Special Theme

바람

06 Essay

내 안의 바람 소리를 듣다

08 Information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12 Interview

손으로 바람을 만들다
부채 장인 금복현

Culture Gallery

16 Taste

줄 서서 맛보는 전국 빵집 열전

18 Finance

티끌 모아 태산 되는 절세 재테크

20 Art

마음을 풀어내는 컬러링 북

22 Travel

꽃향기 따라 걸어볼까

NOROO People

26 Special Interview

함신익과 NOROO, 두 날개로 음악을 전하다
NOROO와 심포니 송의 더 웡(날개) 프로젝트

30 High Five

수성고탄성항균도료, IR52 장영실 상 수상
㈜노루비케미칼 기술진

34 Focus on NOROO

DIY와 PANTONE,
NOROO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다
2015 DIY REFORM SHOW

38 Family Trip

봄날, 목장으로의 소풍
㈜노루비케미칼 해외영업팀 류선우 주임

42 Special Store

열정으로 도전하는 젊은 정신
신도상사

46 News Briefing

50 1 Minute Guide

70th Anniversary
NOROO New Package Design

51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노루홀딩스 인사총무팀 장원석 과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캐피탈타워 A동 10층 T:02-2191-7716

㈜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128

㈜아이피케이 총무팀 송수경 주임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노루오트코팅 전략기획팀 백현정 대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T:031-8059-9517

㈜노루케미칼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13 T:031-599-7276

㈜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승아 사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111 T:041-620-6200

㈜노루코일코팅 지원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486

㈜노루로지넷 총괄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63

㈜노루알앤씨 인사총무팀 현준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285번길 8 T:031-599-7276

칼라메이트㈜ 업무총괄팀 유은아 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T:031-467-6379

변화의 바람

봄은 바람과 함께 옵니다.

‘봄바람은 품으로 기어든다’라는 속담처럼,

꽃샘바람이 한기를 들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꽃을 틔우고, 마음을 부풀게 하지요.

기압의 변화, 공기의 움직임

그리고 어떤 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무슨 일에 더불어 일어나는 기세까지,

바람은 국어사전에 적힌 다양한 뜻만큼이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06.

Essay

내 안의 바람 소리를 듣다

08.

Information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12.

Interview

손으로 바람을 만들다

내 안의 바람 소리를 듣다

답답하게 가라앉아 있던 마음에 바람이 불니다. 그러자 오랜 바람이 이루어지
기라도 할 것처럼 설렙니다. 언젠가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 날아갈까 두려움
에 떨며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그곳에 서게 된다면 도망치는 대신 새
처럼 자유롭게 바람을 타고 싶습니다. 이제 내 안의 바람을 잘 알기에 그 바람
이 두렵지 않습니다.

글 • 이은이 『런던수집』 저자, 바느질 작가

바람의 속성, 변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바람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의 북쪽 끝에 있는 케
이프 라인가(Cape Reinga)라는 곳에서였습니다. 망망대해에서
불어오는 해풍이 어찌나 센지 그곳에 붙어 있었을 표지판은 몇 개
나 떨어져 나갔고, 나무들은 꼬불꼬불한 모습으로 땅에 붙어 옹으
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판 꼴이 되면 어찌나 하는 두
려움에 떨며 나무처럼 꼬부라진 모습으로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바람은 사전적 의미대로 기압의 변화나 공기의 움직임입니다.
바람은 형체가 없지만 세상만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케
이프 라인가에 서 있던 표지판을 날린 것, 나무의 형태를 변화시
킨 것, 저를 도망치게 한 것 모두 바람이 한 일입니다. 바람은 이
렇게 자연, 사물, 인간 삶의 행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
람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바람의 양면성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부정과 긍정, 양면의 결과가 생깁니다. 바
람의 세기는 0~12 단계로 표시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풍력이
센 것을 말합니다. 풍력 최고 단계인 12에 해당하는 바람을 씩쓸
바람이라 하는데, 이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남기는 바람의
대표적인 예죠. 북중미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Hurricane), 북
서태평양의 태풍(Typhoon), 인도양의 사이클론(Cyclone), 호
주의 윌리윌리(Willy-Willy) 등의 씩쓸바람은 해마다 수많은 재
산과 인명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기를 순환시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고 해류를 발생시켜 적조현상을 없애는 등 자연계에는
긍정적 역할을 합니다.

바람을 잘 활용하면 많은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꽃
가루와 씨앗을 멀리 날려 생태계를 유지하는 매개체입니다. 새는

상승과 하강 기류를 이용해 비행을 합니다. 풍력은 전기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또 역풍은 방해가 되겠지만 반대 방
향이라면 순풍이 되어 말 그대로 ‘순풍에 돛 단 듯’ 항해와 비행이
수월해지겠죠.

내면의 바람

바람에 빗대어 말하자면 우리 인생 안팎에도 바람이 불니다. 일
이 술술 풀리게 하는 순풍이 불기도 하고 방해하는 역풍이 불기
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바람은 내면
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간절
한 마음’ 역시 바람이라고 일컫는 건 기가 막힌 언어의 묘미입니
다. 바람이 서서히 세상만물을 변화시키듯이 원하는 대로 변화를
꿈꾸는 마음, 바로 그 내면의 바람에 귀 기울이고 외부로 향한 문
을 열어 행동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닫힌 곳에서는 바람
이 불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고요하고 안정적인지 모르지만 답
답할 것입니다.

타사 튜더는 동화작가이자 삽화가로 유명했지만 늘 자신을 ‘가
정주부’라고 소개하며 정원을 가꾸고 손수 살림을 꾸리는 데 충실
한 삶을 보냈습니다. 남들처럼 공부한 뒤 유학을 다녀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책도 냈지만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바느질로 소품
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사회가 바라는 성공과는 거리가 멀지만 저
역시 내 바람대로 살고 있다는 면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바람을 일으켜 태풍의 진로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시작은 미비할지도 모릅니다. 역풍을 만나 좌절할지도 모
르고, 씩쓸바람에 파괴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의 바
람도 충분히 강하기에 외풍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삶은 어차피 변화의 연속입니다. 오늘 마음의 창을 열고 당신의 바
람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바람은 무엇인가를 바꾸는 힘입니다. 봄바람은 겨울을 봄으로 바꾸고, 가을바람은 기세 좋던 초록 잎을 울긋불긋, 속절없이 바꿔놓지요. 새로 움을 갈망하는 예술계에선 바람이란 단어가 아름답게 쓰이지만, 범인들의 세상에선 그다지 달갑지 않은 변화에 더 자주 이용되는 듯합니다. 늦바람, 춤바람, 치맛바람 등 속되이 낮추는 용도로 말이죠. 이토록 다양한 면모의 바람, 당신에겐 어떤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나요?

01.

바람에도 등급이 있어요

선풍기에 미풍, 약풍, 강풍이 있듯, 자연의 바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이름을 줄줄이 읊자면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흔들바람, 된바람, 센바람, 큰바람, 큰센바람, 노대바람, 왕바람, 그리고 싹쓸바람이지요. 바람은 때와 방향에 따라 구별 짓기도 하는데요, 게가 눈을 감추는 마파람은 여름이나 가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른 봄에 부는 차갑고 매운 바람은 소소리 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하늬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방향을 기능한다면 우린 계절의 변화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겠지요.

02.

바람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퀴즈 하나 냅까요? “나는 너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나는 너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 어떤 것이 맞을까요?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를 ‘바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명사형은 ‘바람’이 됩니다. 즉 두 번째 말이 맞습니다. ‘바람’은 햇볕이나 습기, 악물 등에 의해 색이 변한 것을 뜻합니다. ‘옷이 누렇게 바랬다’처럼요. 바람(風)과 햇갈리지만 그래서 더욱 ‘바람’이라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바람(風)이 변화를 일으키듯 우리의 마음에도 바라는 마음, 바람이 있어야 변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03.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살아야겠다.”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 그리고 그의 스승인 말라르메의 「해변」의 시 구절들입니다. 지난 겨울, 다중인격을 소재로 하여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킬미힐미〉에서 배우 지성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로 이 시구 인용을 들었죠. 늘 자살을 꿈꾸던 인격, 안요셉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고 읊조리고 사라집니다. 이 두 구절은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던 남진우의 시 「로트레아몽 백작의 방황과 좌절에 관한 일곱 개의 노트 혹은 절망 연습」의 마지막을 동시에 장식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혹은 불지 않아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요.



04.

전기를 만드는 힘센 바람

동화, 〈해와 바람〉에서 바람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다가 해의 따스한 온기에 밀려 지고 말죠. 하지만 전기를 만들어내는 효율에 있어서는 태양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풍력 발전은 태양열보다 발전 단가가 더 낮으니까요. 일찍이 사람들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풍차를 돌리고 선박을 운항했지요. 그리고 1897년, 직경 22.8cm의 날개로 9kw의 전기를 만드는 세계 최초의 풍력발전기가 덴마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풍력 발전량이 121,827MW으로 집계된 이후 그 양은 점점 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최근 '윈드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풍력 발전 시설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05.

풍류, 바람이 흐르는 소리

인간의 예술혼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의 청명한 소리를 대금이라는 악기로 표현하고, 천지를 울리게 만드는 큰 바람 소리를 징에 담아 내니 말입니다. 바람을 집어 넣어 웅장함을 자아내는 파이프 오르간은 또 어떨까요. 들숨과 날숨을 흥겨운 음계로 바꾸는 하모니카, 주름상자 안으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하며 음색을 바꾸는 손풍금 등 인간은 바람을 이용해 음악을 만들어 내어 풍류를 즐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을 가리키는 풍류(風流)에도 바람이 들어가는군요. 이래저래 바람은 예술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06.

바람은 왜 피우나요?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법의 역사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62년만에 간통법이 폐지된 것이죠. 이제 드라마의 단골 대사 “바람을 피우다니, 고소할 거야!” 등도 사라지겠군요. 남이 할 땐 바람이고, 내가 할 땐 사랑이던 그 감정들. 사랑에 빠질 때, ‘빠지다’는 자동사이고, 바람을 피울 때, ‘피우다’는 타동사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바람을 피우는 것은 목적어가 수반되는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의식적, 적극적 행동이겠지요? 법이 허용하든 허용치 않든 이런 바람은 사라지는 게 좋겠지요.

07.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죠. 원저작자 마거릿 미첼은 소설의 제목을 주인공 스칼렛 오히라의 마지막 대사인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Tomorrow is another day)”로 하려 했지만 출판사 쪽의 권유에 따라 어니스트 도슨의 시구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영화 평론가인 조민준 씨는 이 제목의 의미가 영화 도입부의 자막에서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합니다. “...꿈처럼 기억되는 과거가 오늘로 살아 있는 곳.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일까?” 즉, 노예제 위에 지켜졌던 남부의 귀족 문화가 전쟁으로 인해 바람과 함께 사라졌음을 가리킨다고 말יי죠. 그러나 사라진 것을 뒤로 하고 내일을 꿈꾸는 스칼렛 오히라가 있기에 이 화려한 이야기는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바람.

SPECIAL THEME
Information



손으로 바람을 만든다

부채 장인 금복현

혹시 이런 추억 있으신가요? 무더운 여름밤, 평상 위에 누워 별을 헤아리다 엄마가 부쳐주는 부채 바람에 스르륵 잠들던 기억 말입니다. 풍경은 다를지라도, 여름 밤과 부채 바람의 추억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에어컨 바람의 위세가 좋아져도, 선풍기 바람의 단계가 세분화되어도, 마음까지 와 닿는 바람은 부채의 바람일 것입니다.

종합예술품, 부채

“여름밤에 어머니가 부쳐준 부채 바람이 사랑과 정성의 바람이었죠. 모기도 쫓아주고, 속도도 조절해 주면서... 그렇게 잠들면 참 행복했죠. 그 바람이 너무나 그립네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청목부채박물관에서 만난 부채 장인, 금복현 관장에게도 가장 그리운 바람은 어머니의 손길이 만든 부채 바람이었습니다.

경기도 우수공예인인 그는 40여 년 전부터 부채 수집을 시작하여 타고난 손재주로 부채를 제작, 9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문화재위원상 특별상을 받는 등 널리 알려진 부채 장인입니다. 표구사를 하던 중 우연히 겸재 정선이 금강산을 그린 부채를 표구한 것이 부채 장인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70년대였는데 그 부채 한 점이 당시 집한 채 가격이었습니다. 그걸 들고 다닌다는 것은 금강산을 손에 넣고 다니는 것과 같겠죠. 움직이는 미술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채를 수집하기 시작하자, 무궁무진한 부채의 매력이 보였습니다. 금복현 관장은 부채를 ‘종합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글씨가 들어가지도 하고, 수를 놓기도 하며, 손잡이는 조각으로 완성되니까요. 1986년, 아시안게임 유치 당시 첫 부채 전시가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후 해외에서도 수 차례 전시가 이어지며 예술품으로서의 부채가 조명되었습니다. 당시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서 선수들이 들고 입장하던 태극선은 한국의 부채를 널리 알렸죠.



그리운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부채 바람



양반의 은근한 바람

“우리나라 부채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견고한 대나무에 한지가 가볍고 질겨 수명이 오래갑니다. 세계 최고지요. 특히 접는 부채인 접선은 세계 최초로 발명했는데 그 곡선은 어디서도 모방할 수 없을 겁니다.” 금복현 관장이 내놓은 부채를 보니 그 자랑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0번 접힌다 하여 백접선인 이 검은 부채는 부챗살 하나하나의 곡선이 달라 접었을 때 완전한 경사를 만드는데, 펼쳤을 때 크기가 어찌나 큰지 급히 부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부채질을 하니 그 은근한 바람이 일품입니다. “이렇게 큰 것은 양반이 쓰던 것이죠. 양반은 부채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천천히 해야 했으니까요.” 이외에도 무당이 굿할 때 쓰는 무당부채, 혼인할 때 얼굴을 가리던 혼선, 임금님 행차에 쓰던 의장선 등 부채는 우리 삶에 다양하게 쓰여 왔습니다. 즐타기 할 때도 부채로 중심을 잡았지요.



단오의 부채 선물

금복현 관장은 이제 부채는 계절에 상관없는 예술 작품으로 제작, 전시되며 판매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오는 단오 즈음하여 부채 전시회가 열린다니 부채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집집마다 있다 해도, 여름철 가방 안에 하나 넣어 두면 든든한 것이 부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채가 내어주는 바람은 시원하고, 햇빛을 가려주거나 급할 땀을 닦아주는 용도 또한 유효합니다. 이번 단오에는 옛 풍습을 따라 부채를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이에게 시원한 바람을 보내 보세요.

CULTURE GALLERY

봄을 맞는 마음은 설렘이요,
봄을 보내는 마음은 아쉬움과 초조함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 가까이 지나간 것을 문득
깨닫기 때문이죠. 태양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마음 먹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해 봅니다.
꽃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듯,
각자 출발선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줄 서서 맛보는 전국 빵집 열전

온 동네 모퉁이마다 들어선 프랜차이즈 빵집으로 인해 빵 맛이 전국적으로 평준화되고 있지만, 몇 대를 이어온 역사 깊은 빵집과 좋은 재료와 참신함으로 눈길을 끄는 젊은 빵집 등 동네 빵집 또한 전국 곳곳에 존재하며 그 고유의 맛을 찾는 이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들은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고객들이 직접 인정하고 소문을 내었으니 더 믿음이 간다. 전국의 동네 빵집, 어디에 있고 무엇이 맛있을까?

대전 성심당 | 전국구 빵집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곳이다.

1956년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성심당 외에도 여러 외식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질인 빵 맛은 그대로여서 대전역에 위치한 성심당 지점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선다. 신선한 부추를 듬뿍 넣은 부추빵과 달콤한 소보로와 진한 팔앙금, 튀김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튀김 소보로가 인기다. 마케팅도 뛰어나서 KTX로 빵을 배달하는 특송 전락을 선보이기도 한다. 일반 택배로도 주문 가능하다. *www.sungsimdang.co.kr

전주 PNB퐁년제과 | 서울 곳곳의 현대백화점에도 입점한 전주의 대표 빵집으로 초콜릿빵에 크림과 딸기잼을 넣고 초콜릿으로 다시 한 번 코팅한 초코파이와 호두가 박힌 촉촉한 옥수수 카스텔라에 모카크림, 딸기잼을 넣은 붓세가 대표 상품이다. 빵의 크기가 제법 커서 우유와 함께 먹으면 꽤 든든하다.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가능한데, 본점과 한옥마을점은 놀이동산을 방불케 할 만큼 대기인원이 많다. *www.pnb1951.com

안동 맘모스제과 | 역시나 2대에 걸쳐 40년 가까운 역사를 쌓아온 빵집으로 미술랭 가이드 한국 편에 등재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크림치즈가 짹짹 차 있는 쫄깃한 크림치즈빵과 바삭한 설탕 코팅과 상큼한 유자가 어우러진 유자 파운드. 큼직한 사과 조각이 듬뿍 든 사과 또띠아도 인기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2세 오너가 안동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써서 맘모스만의 맛을 만들어 내는 곳이다.

*www.mammothbakery.co.kr

울산 좋은아침 | 진열대를 꽉 채운 다양한 빵, 그리고 큼직하게 잘라놓은 시식용 빵들, 월초에 구입한 영수증은 월말까지 50% 할인쿠폰이 되는 통 큰 할인에 롤렛 게임으로 빵 선물을 하고 매월 12일의 수익금은 전액 기부까지! 이 재미있고 기분 좋은 가게는 울산의 좋은아침 베이커리다. 이벤트로도 유명하지만 모든 빵을 천연효모와 콩 유산균으로 만들고, 모든 생크림은 우유만을 고집하여 맛으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옥교동 275-9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73-11 *052-233-0145

군산 이성당 | 1945년 문을 열었으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이라 불린다. 팔이 고르게 들어있는 단팥빵과 양배추가 듬뿍 들어가 느끼하지 않은 야채빵이 대표 메뉴인데 이곳의 단팥빵은 하루 만 개씩 팔리고 야채빵은 아예 판매 개수가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택배로 주문하면 한 달 가까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단다. 이 거센 인기에 떠밀려 이성당은 잠실 롯데에 입점하였다.

*군산시 중앙로 177 *063-445-2772

대구 삼송베이커리 | 〈생활의 달인〉, 〈세 얼간이〉 등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더욱 유명해진 빵집이다. 이곳도 1957년부터 시작되어 2대째 내려오는 제과점이고 택배도 가능하다. 마약빵으로 불리는 통옥수수빵이 유명한데 커피번처럼 달콤한 토핑을 얹은 부푼 빵 속엔 고소한 옥수수가 들어 있다. 빵 종류는 다양하지 않으나, 유명 빵집이 그렇듯이 회전율이 빠른 단순한 메뉴로 갓 구운 빵을 먹게 된다는 게 장점이다. 크림치즈, 팔소보로 등도 인기다. *대구 중구 동성로 3가 7-6 *053-254-4064

천안 두쥬루 | 자연효모와 직접 끓이는 국산 쌀, 최적의 온도로 빵을 완성시키는 돌가마 등 정성과 열정이 넣은 빵 맛을 통해 전국 빵집 중 매출 순위 5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를 얻은 빵집이다. 서울에서 빵집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빵집의 압박과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에 천안에 내려와 직접 건물을 지어 오픈한 두쥬루는 돌가마에서 구운 만주와 14시간 천천히 발효시켜 만든 거북이빵, 하루만 쓰는 튀김기름으로 만든 떡 도우넛 등이 인기 메뉴다. *www.toujours.co.kr

광주 궁전제과 | 1973년 광주에서 문을 열어 현재는 5개 지점을 두고 있다. 궁전제과에 가면 먼저 바구니에 담아야 할 것은 나비파이와 공룡알빵으로, 나비파이는 1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바삭하면서도 쫄깃하고 촉촉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한 손에 꼭 차는 공룡알빵은 바게트에 야채계란샐러드를 가득 넣어 한 끼니를 할 정도로 포만감을 준다. 이 두 메뉴의 역사 또한 30년을 넘어간다. *www.kungjeun.co.kr

아는 만큼
줄어든다!



티끌 모아 태산 되는 절세 재테크

한국은행이 지난 3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1~2%대의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는 작은 차이일지라도 재테크만큼이나 세테크가 큰 힘이 된다. 무심코 사용하는 카드부터 통장 관리, 금융상품 가입, 부동산 등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절세 재테크에 대해 알아보자.

글 · 이경숙_ 생활경제 칼럼니스트

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적극 활용하기

직장인들에게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초미의 관심사이다. 매년 연말 정산 즈음 닥쳐서 준비하기보다 미리 소비생활을 현명하게 관리하면 세금폭탄 대신 기분 좋은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꼭 챙기는 단골 항목. 카드와 현금 사용분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환급 받으려면 각 항목별 소득공제율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우대공제 제도(10% 추가공제)가 올해 6월분까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추가환급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총 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만으로 사용분을 채우기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상반기에는 추가 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하고, 공제금액을 채울 수 있는 각종 우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적절히 배분해 사용하는 것이 환급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금융상품은 세금우대 여부 확인하기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에 있어서도 세금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같은 이율을 자랑하는 금융상품이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이해

실제로 돌려받는 최종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 그런 만큼 '비과세'인지, '우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었던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지난해 말로 신규가입이 종료되어 직장인들의 아쉬움이 큰데, 기존 은행권에 세금우대 저축통장이 없는 경우라면 농협, 수협, 신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 저축'을 활용해보자. 제1금융권인 일반 은행의 이자소득세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인데 비해 예적금의 합계액 3천만 원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에 대해 농특세 1.4%만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당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신규 가입기간이 올해 말까지이므로 관심이 있다면 가입을 서두를 것.

이외에도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나 예년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어 최대 96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세제적격)'과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 등도 세테크 상품으로 관심이 높다.

부동산은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효과 챙기기

결혼 후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절세 효과를 얻으려면 부부 공동명의를 적극 활용해보자. 부부 공동명의로는 지분을 각각 50%씩 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팔아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단독 명의인 경우보다 월등히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개인별로 과세된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개인별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절반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대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이 40%가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 상속세에 대한 부분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상속세도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배우자 어느 한쪽이 사망해 상속받는 경우 단독 명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부부가 한 가구 구성원으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 지분의 50%를 증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부간의 증여는 증여세법에 따라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부동산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명한 재테크의 첫 단추는 아까는 것부터 시작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알게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금관리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계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음을 풀어내는 컬러링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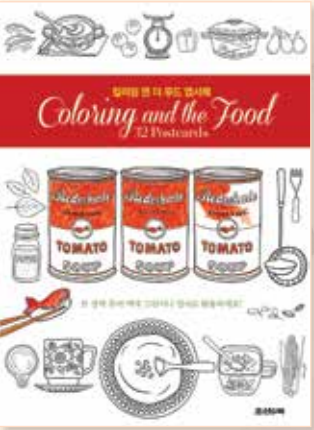
‘안티 스트레스 컬러링 북’이란 부제로 출간된 『비밀의 정원』 이후 컬러링 북은 서점에서 단독 섹션을 가질 정도로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았다. 스스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부담감 없이 선을 따라 면을 채우면서 마음을 비우고, 나만의 컬러를 확인하는 컬러링 북 열풍의 이면에서 스트레스에 짓눌린 사회인들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숨구멍을 틔워주는 게 문화 아니겠나. 게다가 쉬우니 더 반갑다. 다양한 컬러링 북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마음을 컬러로 풀어내 보자.



비밀의 정원

조해너 배스포드
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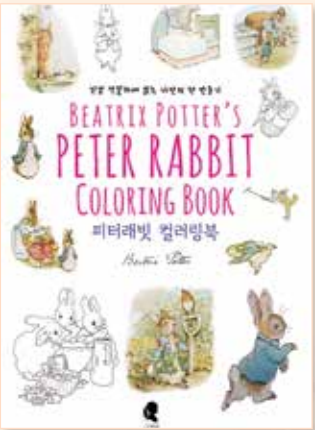
컬러링 북의 인기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조해너 배스포드의 책은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에서 이미 컬러링 북 신드롬을 일으켰다. 그러나 영국에서 10만 부, 미국에서 12만 부 팔린 이 책이 한국에서 반 년 새 40만 부나 팔린 것은 한국 사회의 스트레스 수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스타벅스, DKNY 등 다양한 브랜드와 작업한 일러스트레이터 조해너 배스포드는 자신이 사는 스코틀랜드 시골집 주변의 꽃과 나무, 벌레와 동물을 손으로 직접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했다. 모니터와 키보드가 아닌, 종이와 잉크를 사용해 아날로그 세계에 빠져들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다. 직접 펼쳐보면 왜 베스트셀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컬러링 앤 더 푸드

빨간고래 박정아
조선앤북 / 12,000원

짜증을 녹여주는 아이스크림, 뽀족해진 마음을 달래는 롤 케이크, 경쾌함의 속도를 높이는 햄버거... 음식은 마음을 여는 열쇠임에 틀림없다. 빨간고래 캐릭터로 활동하는 작가 박정아의 『컬러링 앤 더 푸드』는 이러한 음식들로 잘 차려진 한 상을 받는 듯한 책이다. 복잡한 선이나 반복적인 패턴 없이, 디지털부터 스시, 오뎅 바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자연스러운 손그림으로 채워져 있어서 편안하게 색을 입힐 수 있도록 돕는다. 스트레스 받는 날, 먹는 대신 그림을 완성해 보자. 책 속에 초대장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와 선물 포장을 마무리하는 데코 스티커, 티 코스터 등을 꾸밀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색칠의 즐거움을 더했다.



피터 래빗 컬러링 북

베아트릭스 포터
그여름 / 8,800원

영국의 동화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베아트릭스 포터의 대표 작품인 『피터 래빗』의 원작 그림을 색칠하여 한 권의 동화책을 완성하는 컬러링 북이다. 원작의 텍스트를 영문과 한글로 수록해 컬러링을 완성하고 나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피터 래빗’을 만들 수 있다. 『피터 래빗』은 1902년 출간된 이후 지난 100년 동안 1억 5,0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30개 언어로 번역된 고전으로, 주인공 피터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토끼로 사랑 받고 있다. 하지만 내 손으로 완성한 피터는 그 느낌이 사뭇 다를 것이다. 자녀나 연인에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선물하고 싶다면 이 작은 컬러링 북이 제격이다.



파리 시크릿

조에 드 라스 카스
자음과모음 / 12,000원

여행이 간절할 때, 책을 펼쳐 아름다운 파리의 거리로 나가 보자. 멈춰 서서 고풍스런 벽돌 하나하나에 색을 입히고, 센 강을 건너 강둑의 푸른 물결도 칠량이게 해 보는 거다. 모퉁이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는 건 어떨까? 석양이 깔리면 에펠탑에 불도 켜 주자.

파리의 예술 감독 조에 드 라스 카스의 『파리 시크릿』은 건물에서 시작해 패션, 화장품, 디저트와 찻잔, 거리의 소녀 등 파리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포착되어 있다. 조금은 험령하고 느슨한 그림들이 여유를 준다. 수채화로 파리 풍경을 채워간다면 건조한 일상이 조금은 촉촉해지지 않을까.

향기 따라 걸어볼까

걷는 여행은 좋다. 차가 없으니 단출해진 집에 부족한 것은 여행지에서 찾게 되어 지역 경제에도 좋다. 몸의 건강에도 좋지만, 사색이 따르니 정신에도 이롭다. 제주 올레 길 이후 전국 곳곳의 걷는 길이 각광을 받고 있다. 느린 걸음에는 꽃 구경도 제격이다. 길 옆 드문드문 핀 야생화를 찾으며, 흐드러지게 핀 꽃 향기를 따르며 걷는 트래킹 코스를 소개한다.

호사스런 분홍의 장관, 바래봉 철쭉길

전라남도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 자락은 봄이면 철쭉이 장관이다. 해발 500m의 산자락 아래서부터 피기 시작한 철쭉은 점점 정상을 향해 가며 5월 말까지 산을 진분홍으로 물들인다. 철쭉 군락지가 형성된 과정이 재미있는데, 과거에 시범적으로 방목해 키운 면양이 철쭉만 남기고 잡목을 먹여 치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화사한 철쭉과 연두색 키 낮은 관목이 어우러진 이국적인 고원지대의 풍경과 이어진 산자락들의 능선은 아시아의 알프스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름답다. 철쭉공원 주차장에서 철쭉이 만개하는 바래봉(삿갓봉)까지 왕복 5.5km로 3시간 가량 소요되며, 철쭉에 푹 파묻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팔랑치를 거쳐 보리당까지 왕복하는 데는 8km로 약 4~5시간 소요된다. 그리 험한 산행이 아닌데다 꽃과 함께여서 소풍 가듯 즐기기 좋다.

*문의 : 남원시 문화관광과 063-620-6163



비밀의 숲이 열리는 5월, 태백의 야생화

태백시의 금대봉은 매봉산과 함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대덕산으로 이어지는 일대가 야생화로 유명하여 산상화원이라 불린다. 길에서 만나는 넓은 초지와 그 위를 뒤덮은 소박한 야생화 군락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트래킹 시작점인 두문동재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후 금대봉 정상까지는 두 시간이면 왕복 가능하며 초보에게 무난하며, 대덕산으로 향하여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로 내려오는 길은 최소 6시간이 걸리기에 왕복은 무리다. 대신 검룡소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코스로 야생화를 즐겨도 좋다. 이 일대는 자연생태보호지역으로 되어 매년 5월 15일까지는 입산이 제한되고 이후 10월 말까지 하루 300명까지만 입산시키고 있으므로 등산을 위해서는 태백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해 두는 게 좋다.

*문의 : 태백시 관광안내소 033-550-2828

달콤한 향기가 주렁주렁, 경북 칠곡 아카시아 꽃길

꽃 향기에 온 몸을 담그고 싶다면 이곳이 어떨까. 경상북도 칠곡의 지천면과 연호리를 잇는 신동재의 국도에서는 아카시아 꽃 향기에 샤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아카시아 군락지인 신동재의 5.2km의 산길 주변은 아카시아 꽃으로 터널을 이루 해마다 아카시아 벌꿀 축제가 열린다. 아카시아 나무가 본격적으로 식재된 것은 6.25 이후로, 낙동강 전투에 폭격으로 신동재가 민동산으로 변하자 번식력 강한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것이 지금에 이른다. 전국의 양봉 농가는 꽃이 피는 이때, 꿀을 채취하러 이곳으로 모여드는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꿀의 40% 이상이 이곳에서 채밀된다. 올해 아카시아 축제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열렸으며 아카시아 꽃길 걷기, 야생화, 분재 체험, 사물놀이 등과 함께 다양한 꿀 관련 행사가 치러졌다.

*문의 : 지천면사무소 054-979-5355



여왕의 품위를 가까이서 만나다, 부천 백만송이장미원

햇빛이 점점 강해지는 6월이 되면, 그 열기를 받아 드디어 장미 향도 짙어진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위치한 백만송이장미원은 입장료도, 별다른 행사도 없는 동네 근린공원이지만 4300여 평이나 되는 장미꽃밭은 그야말로 '백만송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넘치는 아름다움을 뽐낸다.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언덕을 오르며 차근차근 장미들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발 아래 하양, 분홍, 빨강, 주홍 장미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언덕 위에는 도당산으로 향하는 등산길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길을 따르는 누리길을 걸으면 수목원과 야생화도 즐길 수 있다.

*문의 : 도당동 주민센터 032-625-5782



내 손 안의 가이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여행 짐을 챙길 때, 스마트폰 안에도 간단히 꾸러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 여행 코스를 잡아두고 기록하는 앱은 이제 편한 신발과 짐가방만큼이나 여행에 필수적인 준비물이 되었다. 꽃길 따라 떠나는 여행에 동반하면 좋은 앱들을 찾아보았다.

램블러 ramblr

2014년 3월부터 한국어판 서비스를 시작한 램블라는 동종 애플리케이션 중 상위의 인기를 구가하는 여행경로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가 코스를 마음대로 그릴 수도 있고, 걷기와 뛰기, 자전거 하이킹, 등산, 카약 등의 다양한 항목을 골라 이동하는 자신의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해 준다. 또한 이동 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메모와 음성녹음도 할 수 있어 여행 중 현장에서 생생한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며 이를 SNS에 바로 옮길 수 있어 편리하다. 이렇게 업로드한 여행 일기는 램블라 사이트에 공유되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 사용자의 여행을 함께하며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으며 다른 이들의 여행 루트를 확인하여 초행길을 준비할 수도 있으니 든든한 여행 계획을 만들어 준다. 등산뿐 아니라 동네와 도시, 어디든 이용 가능하며 다운로드도 무료다.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을 대비해 미리 지도를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맵 다운로드 기능이 있다.

트랭글 Traggle

램블러처럼 자신의 트랙을 다른 이와 공유하고 다른 이들의 정보를 받아 활용할 수 있는 앱이다. 트래글의 재미는 산 정상까지 등반했을 때 봉우리 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등반 기록이 각 산의 배지로 한눈에 보이니 자주 다른 산에 도전케 하여 '배지 페인'을 만든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마일리지에 따라 랭킹이 부여되어 처음에는 점공으로 시작, 활동이 늘어날수록 랭킹이 올라가는 즐거움이 있다. 등반 외에도 자전거, 뛰기, 인라인 등의 운동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 산행정보

대한민국 21개 국립공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앱이다. 가장 유용한 포인트는 국립공원 내에서 언제든지 조난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탐방로 이탈 알림, 위험지역 접근 알림 등의 기능을 ON 해 두다면 보다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등산로 안내와 함께 날씨 정보와 안전 매뉴얼 등을 제공하니 국립공원을 여행한다면 꼭 설치해 두자.

모야모 Moyamo

“아빠,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아빠라면, 모야모야를 이용하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모야모야에 꽃의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이름과 관리법을 안내해 준다. 대학교수와 화훼업계 종사자, 야생화 전문가 등 ‘집단지성’과 앱 이용자들이 답변을 보내주는 모야모야는 지난해 11월 시범서비스 출시 후 3개월만에 1만 5천 여 건의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N O R O O
P E O P L E

NOROO의 생각은 모두를 향합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과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문화 공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DIY 제품들.

누구든지 NOROO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THE WING PROJECT

함신익과 NOROO, 두 날개로 음악을 전하다

NOROO와 심포니 송의 더 윈(날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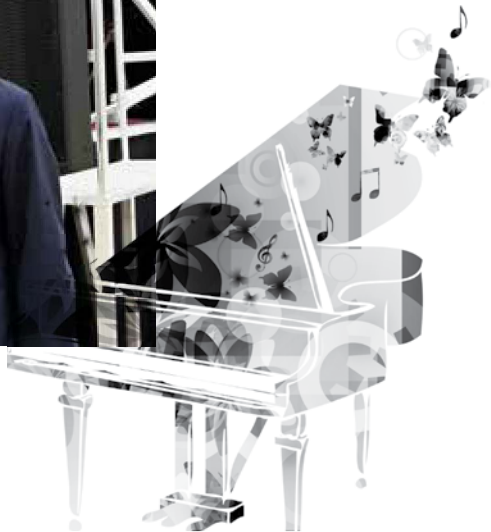
서울 강북구의 미양초등학교에 낯선 트럭이 등장했다. 텍시도를 입은 듯 멋진 트럭이 거대한 날개를 들어올리자 감춰졌던 무대가 열렸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초등학생들도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다. 봄날의 오후, 까르르 장난치는 아이들과 그 사이로 울려 퍼지는 모차르트 교향곡. NOROO와 심포니 송의 '더 윈(날개)' 프로젝트는 그렇게 첫 날갯짓을 시작하였다.

모두에게 클래식 감동을

대전시향 상임지휘자, KBS 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거쳐 예일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예일대학 음악대학 지휘과 교수, 심포니 송 예술감독 등 다양한 직함을 지닌 지휘자 함신익에게는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따라다닌다. 바로 '오케스트라 부흥사'. 말는 오케스트라마다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하여 지닌 명성에 걸맞게, 함신익 예술감독의 연주회는 통상적인 클래식 연주회의 격식을 깨고 특색 있는 감동을 남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였다.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라도 아이돌 가수의 음악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베토벤에게서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감동의 기회를 많은 분들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는 콘서트 홀에 청중을 불러모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또 한 번, 함신익다운 발상을 해냈다. 그것은 '찾아가는 공연장'. 세계 최초로 트럭에 연주회장을 꾸며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것이었다.





THE WING PROJECT

나는 NOROO의 아티스트

“축구를 하러 간 강원도 태백의 작은 학교 운동장에서 최고의 음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제자가 연주한 클래식 기타 소리가 숲에 반사되어 운동장을 골고루 채우더군요. 바로 이거다 싶었죠.”

기타 소리에 결정적인 골 찬스는 놓쳤지만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산과 숲,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음향이 될 테니, 무대만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선거 유세할 때 쓰는 트럭을 멋있게 만들면 어떨까 했죠.” 객석의 기침 소리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클래식 연주회장을, 트럭에 꾸며 야외로 옮기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창의적인 발상을 높이 사고, 문화적 사회 봉사를 조용히 실천하고자 한 NOROO 한영재 회장의 이해와 지원은 그것을 가능케 했다.

“5.5톤 왕바디(적재함 문이 날개처럼 좌우의 위로 열리는 트럭) 트럭의 디자인부터 안전도 점검, 음향과 조명 상태까지 NOROO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wing(날개) 프로젝트는 NOROO와 심포니 송의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NOROO의 오케스트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전 NOROO의 아티스트인 것이구요.”

We are your Symphony

사실, 클래식 음악을 접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라디오, 유튜브 등을 통해 얼마든지 무료로 감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굳이 찾아가는 연주회를 하려는 걸까.

“연주자들의 몸짓과 땀, 표정 등을 느끼며 교감하는 신비감은 현장에만 있습니다. 현장과 유튜브의 차이는 직접 만나는 데이트와 화상채팅만큼이나 간극이 크죠. 더 wing(날개) 프로젝트의 한 시간 반 연주에서 관객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관객도 감동을 받지만 저 역시 연주회에 대한 관객의 몰입도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관객과 무대가 하나가 되었던 환희의 순간을 떠올리는 함신의 예술감독, 그에게 마지막으로 더 wing(날개) 프로젝트를 통해 희망하는 바를 물었다. “문화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께 제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선물인 클래식 음악을 한 그릇씩 정성껏 대접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시고 맛있으셨다면 다시 사 드시거나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말이죠!”

수성고탄성향균도로, IR52 장영실 상 수상

(주)노루비케미칼 기술진

종종, 기술과 발상의 혁신은 하나의 일반명사로 통용되곤 한다. 첫 휴대용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였던 소니의 워크맨이 그랬고, 첫 접착식 메모지인 3M의 포스트잇이 그러하며, 접착용 셀로판테이프를 통칭하는 스카치테이프가 그렇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 질감도로와 무광도로 두 가지였던 자동차 내부 도로 시스템의 항목을 세 가지로 늘린 (주)노루비케미칼의 고탄성도로다. 자동차 업계에서 일반명사로 통용되는 (주)노루비케미칼의 고탄성도로 개발은 지난 3월, NOROO에 첫 IR52 장영실 상의 영광을 안겨 주었다.

고탄성도로, 그 성공의 기록

정확히 3년 전 봄, NOROO 사보에는 ‘컬럼버스의 달걀, 노루비케미칼의 수성고탄성향균도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NOROO 그룹 최초이자 도로업계 최초로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을 받은 (주)노루비케미칼의 수성고탄성향균도로(이하 고탄성도로) 기술 개발 소식을 담은 기사였다. 이와 함께 자동차 플라스틱 내장 도로의 새 지평을 연 고탄성도로는 2015년 3월, IR52 장영실 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혁신적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 수상의 과정을 함께한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주)노루비케미칼 기술연구소 안재범 부장, 연구2팀의 이용철 차장, 연구1팀의 주훈관 과장과 오대근 대리, 영업1팀의 김동우 대리다. 아쉽게도 김민기 과장은 NRB체코 법인에 주재해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



자동차 플라스틱 내장 도로의 새 지평을 연 고탄성도로는 2015년 3월, IR52 장영실 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혁신적 기술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이용철 차장

안재범 부장

김동우 대리



주훈관 과장

오대근 대리



IR52 장영실 상
신기술 제품의 개발과 상품화로 산업 기술 혁신에 앞장선 국내 업체와 연구소의 기술 개발 담당자에게 수여하는 상



도로업계의
첫 수상

“IR52 장영실 상은 신기술 제품의 개발과 상품화로 산업 기술 혁신에 앞장선 국내 업체와 연구소의 기술 개발 담당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고탄성도료는 개발에 대한 신기술 인증을 NET로 받은 후 양산화 성공과 2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장영실 상에 도전한 것이죠.” 이용철 팀장의 설명이다.

산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 개발품들은 NET와 장영실 상 수상의 ‘엘리트 코스’를 거치곤 한다. 그리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영실 상은 한국 과학 기술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립니다. 상업적 성과를 토대로 선정된 신창제품을 산업계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전문분과위원회가 예비 심사하는데 기술의 독창성과 경쟁력, 기술적 파급 효과, 개발인력과 개발기간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세부자료를 검토하지요. 그 후 과학기술계 주요 기관장과 학계 권위자 등으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저희는 제작년부터 시도하여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도로업계에서 나온 첫 장영실 상이었죠.” 안재범 부장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다섯 번의 도전 과정이 어땠을지는 그의 웃음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 뿌듯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퍼플오션의
개척자

작년 한해 6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고탄성도료는 도로의 시스템을 바꿨다는 것에서 장영실 상 심사위원들에게 어필했다. 김동우 대리는 “저희 제품이 나오면서 기존에 질감도료와 무광도료만 있던 코팅 시스템에 고탄성도료라는 사양이 하나 더 생겨난 거죠. 도로의 그레이드를 한 단계 높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경쟁이 치열한 질감도료의 레드오션에서, (주)노루비케미칼은 발상의 전환으로 퍼플오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는 고탄성도료라는 이름이 일반명사화되어 다른 회사들도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과 발상에 있어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오리지널 제품과의 품질 차이는 현격하다.

“라인의 작업성을 끌어올린 것과 함께, 촉감의 정량화도 주효했습니다. 섬유나 화장품에서 쓰이던 촉감에 대한 수치를 끌어와 촉감도료의 기준을 세웠는데,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재범 부장과 이용철 팀장은 이와 관련한 새로운 프로젝트 또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주)노루비케미칼의 끊임없는 시도가 또 어떤 혁신을 낳을지 기대되는 바다.

고탄성도료의 장영실 상 수상은 끝이 아니다. (주)노루비케미칼에게는 수많은 기술 개발의 허들 중 하나를 뛰어넘은 것뿐이다. 고객의 필요 그 너머, 상상 그 이상을 구현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낸 그들에게 허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무한을 향한 계단과 같은 것이니 말이다.



DIY와 PANTONE

NOROO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나다

2015 DIY REFORM SHOW

벚꽃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 4월 9일부터 1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노루페인트가 참가한 <2015 DIY REFORM SHOW>가 열렸다. 화창한 날씨와 만개한 벚꽃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전부터 줄지어 입장한 관람객들은 ㈜노루페인트의 부스에서 PANTONE Premium Paints의 홈스타일링을 통해 아름다운 컬러에 푹 빠져들었다.



팬톤으로 꾸민 컬러 시티

<2015 DIY REFORM SHOW>가 열린 코엑스 B HALL에 들어서자 곳곳에서 ㈜노루페인트의 PANTONE Premium Paints(이하 팬톤페인트) 종이가방을 든 관람객들이 보였다. 옐로우, 민트의 산뜻함과 발랄한 도트 무늬에 팝아트의 경쾌한 일러스트레이션이 가미된 가방은 팬톤 페인트의 감각적인 색채 구현을 그대로 전했다. 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컬러들을 찾아가자 색색으로 꾸며진 ㈜노루페인트 부스를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에 NOROO PARK라는 컨셉으로 페인팅의 즐거움과 편리함, 재미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했다면 이번에는 팬톤페인트의 품질과 컬러 재현력, 가격 등의 콘텐츠를 고객들께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팬톤의 컬러를 활용하는 방법’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어 컬러 시티를 만들었습니다.” ㈜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의 손주영 차장의 설명을 따라가니 갤러리와 체험존, 카페, 놀이터, 버스 정류장 등 ‘팬톤페인트’의 이름을 곳곳에 건 컬러의 도시, 컬러 시티가 보였다. 도시 곳곳을 지키는 NOROO 직원들은 안내와 시연으로 활기찬 모습이었다.





**Fabulous COLOR!
PANTONE
Premium Paints!**

컬러 시티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페인팅한 벽과 이에 어울리는 소품으로 컬러 인테리어를 제시한 ‘팬톤페인트 갤러리’로 편안한 느낌의 베이직 클래식, 복고풍 디자인의 레트로 모던 등 다섯 가지 컬러 스타일이 실제 팬톤페인트로 조색하여 페인팅한 컬러 칩과 함께 선을 보였다. 기존 수입 페인트들의 컬러가 해외 인테리어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 반해, (주)노루페인트는 한국의 벽, 창틀, 몰딩, 가구 등의 컬러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과 생활에 적합한 5가지 컬러 스타일을 제안한 것이다. 갤러리에서는 마치 도슨트의 설명을 듣듯 NOROO 직원들이 친절하게 가이드를 맡았고 마음에 드는 컬러는 바로 조색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보여주기도 했다.

행사장 한 켠에서는 “Fabulous COLOR!”라는 감탄의 외침이 연이어 들려왔다. 마음에 드는 팬톤페인트의 벽 컬러를 찍고 “Fabulous COLOR!”라고 외치면 해당하는 컬러의 팬톤페인트를 획득하는 이벤트에 관람객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컬러풀한 팬톤페인트 저금통을 받는 퀴즈 이벤트, 직접 팬톤페인트의 부드러운 발림성과 자극 없는 냄새를 확인하는 체험존, 열차단페인트 유리페인트의 신기한 기능을 시연하는 팝업 스토어와 직접 의자와 트레이를 페인팅하는 DIY스쿨 등 (주)노루페인트의 컬러 시티는 다채로운 행사들로 꽉 차 있었다.

**NOROO와 함께
홈스타일링**

(주)노루페인트는 이번 행사에 특별한 강연도 마련했다. 바로 홈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리타홈’ 이 선영 씨의 홈스타일링 팁과 팬톤 인테리어 강연. 그는 “가장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페인팅”이라고 강조하며 작은 가구나 소품부터 시도해 볼 것을 권했다. 또한 팬톤페인트는 컬러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고, 롤링이나 덧칠을 해도 자국이 남지 않아 작업하기가 편리하다며 추천하기도 했다.

다양한 체험과 강연 등, <2015 DIY REFORM SHOW>는 고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번 행사장에서 (주)노루페인트의 컬러 시티를 방문한 관람객들은 도트 무늬 가방에 페인트와 저금통 외에도 한껏 부푼 마음을 담아가지 않았을까? 더욱 손쉽게 컬러를 고르고, 바르고, 바꿀 수 있다는 즐거운 기대와 DIY를 충직하게 도와줄 팬톤페인트에 대한 믿음도 함께 말이다.



봄날 목장으로의 소풍

(주)노루비케미칼 해외영업팀 류선우 주임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치고 반짝이는 햇살이 드러나자 그제야 안심했다는 듯 땅과 나무의 꽃망울이 열리기 시작했다.
활기를 얻은 양과 염소, 강아지와 토끼들도 따뜻하게 데워진 땅 위를 구르고 뛰며 자신들만의 소리로 이야기를 나눈다.
생명의 소리가 가득한 목장, 포니월드로 (주)노루비케미칼 해외영업팀 류선우 주임 커플을 초대했다.

봄날은 방울방울

“와~ 귀여워!” 양떼 우리 앞에 선 유가영 씨가 갈색 눈을 반짝이며 웃는다. 유난히 사람에게서 먹이를 받아먹는 걸 좋아한다는 양은 가영 씨가 손에 든 건초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우물거리는 중이다. 함께 선 류선우 주임도 건초를 대주느라 바쁘다. 손바닥에 와 닿는 양의 부드러운 입김과 털이 간지러워서 들은 자꾸만 웃음이 터지는 걸 감출 수가 없다.

양떼 우리를 지나, 염소 우리로 향하자 적극적인 녀석이 식사가 급하다는 듯 울타리에 앞발을 척 걸친다. 열심히 건초를 씹으면서도 게슴츠레해 보이는 염소 눈으로 연신 다음 건초를 노리는 중이다. “저 염소 수염 좀 봐. 앤 어른인가 봐.” 우스꽝스러운 염소 수염에, 미니 말의 갈기를 묶어 올린 헤어스타일을 보며 헛살처럼 웃는 유가영 씨와 그런 그녀의 웃음에 메아리처럼 맑게 화답하는 류선우 주임, 두 사람을 보니 떠오르는 영화 속 대사가 있다. 하정우와 공효진 주연의 영화 <러브픽션>의 사랑 고백, “나는 너를 방울방울해.” 모든 사람이 아닌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 고백으로 나온 이 달콤한 애정 표현이 두 사람에게도 참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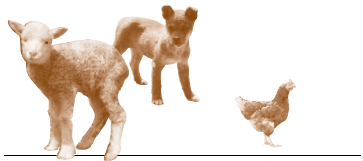
운명처럼 이어진 인연

류선우 주임과 유가영 씨는 대학교 시절부터 만나온 커플이다. 류선우 주임이 멀리 프랑스에 해외 인턴 생활을 할 때도 우연찮게 유가영 씨가 영국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게 되어 운명처럼 인연이 이어졌다. 졸업 이후 류선우 주임은 천안에서, 유가영 씨는 청주에서 일하게 되어 거리는 멀어졌지만 차를 이용하면 30~40분이면 서로에게 닿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다. “매일 볼 수 있었던 학생 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학생 때보다 금전적 여유가 생기니까, 소고기도 자주 먹을 수 있고요!”라며 그들은 수제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하는 도중에 웃음을 또 터뜨린다. 얼굴엔 장난기로 아이스크림을 가득 묻힌 채 말이다.

낙천적인 성격의 류선우 주임은 힘들다는 취업준비생 시절을 묻는 질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꼭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종합상사에서 인턴 생활을 한 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을 파는 해외영업을 꼭 해야겠다 다짐했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참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유가영 씨에게 참 득직한 남자친구다.

해외영업 쪽 업무가 늘고 있어서 일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는 그에게 “많이 바쁜 것 같아 걱정도 되지만, 회사 분위기가 가족적이라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 것 같다”며 살며시 웃는 유가영 씨는 류선우 씨의 말대로 ‘참 예쁜 여자친구’고 말이다.

어떻게 사귀게 되었냐는 질문에 “너무 예뻐서, 신사답게 잘 챙겨줘서”라고 각각 대답하는 그들이지만, 사실 질문도, 답도 중요치 않다. 그저 인연이 아름답게 닿고 추억이 커켜이 쌓여 서로에게 운명이 된 것뿐. 목장에서 보낸 봄날 또한 새로이 아롱지어져 추억의 앨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



포니월드

양평에 위치한 포니월드는 목장에서 키우는 여러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쓰다듬고 안아보며 교감할 수 있는 체험 목장이다. 신선한 치즈와 우유로 직접 만드는 피자 와 아이스크림도 특별한 맛이다. 친행이 여유로워 동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좋다.
Tel : 031-774-4512

열정으로 도전하는 젊은 정신

신도상사

한참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 고양시의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아파트와 건물들이 죽죽 올라가면서 매출도 함께 치솟고 있는 특약점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앞, 뒤, 옆 모두 푹푹푹 건축 중인 신규 주택단지 안에 시원스레 문을 열고 페인트를 실어내고 있는 신도상사다.

스파르타식 경영 수업

신도상사에 들어서니 키 큰 서양 난과 잎 푸른 화분들이 가게 오픈을 축하하는 리본을 달고 서 있다. 1996년부터 자리잡았던 삼송역 근처에서 지금의 원흥지구 주택 단지 안으로 이사온 것이 2개월 전이라 가게 안에선 새 출발의 기운이 물씬 느껴졌다.

신도상사의 주명돈 실장은 아버지 주병환 사장과 어머니 박미숙 대표가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맡아 5년째 운영 중이다. 많은 특약점들이 부모인 1세대의 노하우에 2세대의 열정을 더해 성공 스토리를 이어가거나 1세대의 트레이닝을 거친 2세대의 분발이 새로운 성공 역사를 만든다. 그런데 신도상사의 경우는 독특하다. 건축업을 병행하던 주병환 사장이 한동안 접고 있던 가게를 주명돈 실장에게 덱 넘겼던 것이다. 막 군대를 제대한 20대 청년은 그렇게 페인트 장사에 뛰어들었다. “맨땅에 헤딩을 했다고 할 수 있죠. 페인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책도 보고 공부도 했지만 실패하면서 배운 게 더 많았습니다”라고 주명돈 실장은 말한다.

스파르타 식으로 아들에게 경영을 맡긴 사장 내외는 아들의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허드렛일부터 시켜가며 일을 가르치는데, 이들은 아들에게 전권을 맡기고 오히려 허드렛일만 도왔단다. 그렇게 주 실장이 다시 시작한 신도상사는 2014년 매출을 전년에 비해 두 배로 올리면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객 중심의 영업

“20년 전 페인트 가게를 시작할 땐 지식이 없어서 참 힘들었죠. 그때 노루페인트에게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되니 지식이 쌓이고 조금씩 수월해지더라고요. 아들은 저보다 빨리 습득하더군요. 1년 반쯤 되니 매출이 향상되면서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주병환 사장의 말에 지난 5년간 사장 내외보다 더 가까이서 주 실장과 동고동락해 온 (주)노루페인트 복서를 지점 배중완 과장도 말을 보탠다. “주 실장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기술의 습득이 아주 빨라요. 제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요. 영업은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게를 이전한 것도 신도시라 페인트 공사로 납품을 많이 하지만 앞으로 DIY 쪽에서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하는 매장으로도 만들고 싶다는 목표 때문이죠.”

현재 원흥지구는 2014년 후반부터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이곳에서 신도상사가 해낸 매출의 비결을 묻자 배중완 과장은 ‘주 실장의 의지와 고객 맞춤서비스’를 든다. 주 실장은 과거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고객 응대를 탁월하게 해내어 매니저까지 올랐던 경력이 있어서인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 그러나 주 실장은 아직 ‘성공’이란 말을 입에 올리기 조심스러워한다. “아직 시작에 불과한 걸요. 나아갈 길이 멀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성실과 열정의 파트너십

앞으로 할 일이 많으며 일 욕심을 내는 젊은 아들에게 20년 경력의 사장 내외는 ‘기본’과 ‘봉사’를 강조한다. 특히 박미숙 대표는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부하라고 주 실장에게 가르치고 있단다.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야죠.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라고 말이다.

그러한 사장 내외에게 NOROO는 그간 어떤 동반자였을까. 주병환 사장은 ‘품목이 다양하고 품질이 좋은 데다가 영업사원도 친절한’ 회사라고 말한다. 주 실장은 거기에 ‘성실한’ 파트너임을 덧붙였다. 지난해의 성공을 말할 때보다 앞으로의 계획을 질문했을 때 더 눈이 빛나는 주 실장은 NOROO에게 ‘젊고, 열정적인’ 파트너일 것이다. 그의 젊음과 열정이 추진력이 되어 앞으로 NOROO와 신도상사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미래는 지난 20년보다 더욱더 멀리 뻗어가지 않을까.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주)노루페인트, 잠실야구장에 금연벽화길 조성

(주)노루페인트

(주)노루페인트, 잠실야구장에 금연벽화길 조성

(주)노루페인트는 지난 3월 26일, 송파구와 함께 잠실야구장 3층 복도의 벽면 200m(높이 1.5m)에 벽화를 그려 '금연-절주' 메시지를 전하는 금연벽화길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벽화는 지역사회의 재능나눔으로 완성되었으며, 동서울대 학생들과 삼성 SDS 임직원, 사프란 자원봉사팀, (주)노루페인트 봉사단이 벽화 도안과 페인팅 작업에 참여하였고 (주)노루페인트가 친환경페인트를 후원하였다.

약 일주일여 걸쳐 4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오염된 벽면의 청소와 밑바탕 도색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동서울대 학생들의 디자인에 따라 23일부터 페인팅이 시작되었다. 완성된 벽화는 잠실야구장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것과 3층에 따로 위치한 흡연실을 알려 흡연자들을 흡연구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실제로 프로젝트 전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연구역 준수율은 16%에서 29%로, 금연구역 인지율은 85%에서 97%까지 높아졌다. 또한 잠실야구장은 경기장 음주폐해 모니터링(음주소란, 주류판매 규정 준수 여부)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데



2015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세미나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 이후 음주폐해 예방 정책의 수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에 대해 "금연-절주 환경을 만들자는 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가 깊다"고 하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잠실운동장 뿐만 아니라 송파구 모든 지역에서 음주 및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15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세미나

지난 2월 10일과 11일, 제주에서는 1박2일의 일정으로 (주)노루페인트 VIP 특약점 초청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함께 행복해지는 동행의 두 번째 이야기 'Let's be Happy!'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안경수 회장과 김수경 사장,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특약점주들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특히 안경수 회장은 첫날 열린 세미나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며 수익성을 높이는 성공 문화를 위해 3S(STRATEGIC, SYSTEMATIC, SCIENTIFIC) 관점과 빅데이터를 통해 창조적 경영을 이끌 것을 약속했으며 특약점주들에게는 고객에게 페인트를 더욱 널리 알리고 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15년 상반기 (주)노루페인트 비상사태 대응 훈련 실시

이어 기동춘 기술연구소장은 도로 산업의 큰 흐름이 자원의 효율화 및 환경과 건강, 세계화로 가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따라 개발된 건축용 도로와 개선된 작업성을 지닌 자보용 신제품을 소개하였고, 창립 70주년을 맞아 NOROO의 역사 동영상과 함께 발표에 나선 김민성 상무는 특약점들의 의견에 따라 새로이 디자인한 용기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오른 고 박목월 시인의 아들인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삶에 의미를 부여할 것"을 이야기하며 'Let's be Happy!'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듯 세미나로 시작된 제주에서의 1박2일은 특약점과 (주)노루페인트가 함께하는 동행의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2015년 상반기 (주)노루페인트 비상사태 대응 훈련 실시

지난 4월 3일에 상반기 (주)노루페인트 비상사태 대응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번 대응훈련은 지난해 수증기 유출사고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 조직별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여 대내외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대응 상황으로는 페인트 생산 저장탱크에 화재가 발생하여 유증기가 사외로 방출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비상사태 대응훈련은 비상방재조직에 편성된 임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초기대응 + 비상사태



(주)노루페인트 17년 연속 1차교섭 임금협상 타결

선언 및 훈련, 두 가지로 구성(1차 : 초기 대응 훈련, 2차 : 비상사태 선포 및 비상사태 대응)하여 시나리오별 조직 역할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주)노루페인트 17년 연속 1차교섭 임금협상 타결

(주)노루페인트(김수경 사장)는 노동조합(박연수 위원장)과 지난 4월 20일 임금인상 협상을 17년 연속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주)노루페인트 노사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연초에 세웠던 사업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전제로 금년 임금을 '기본급 5.9%' 인상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상집위원회의, 대의원회의, 그리고 칠서, 포승 등 지방공장을 위시한 조합원 설명회를 통해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합원들의 신뢰와 성원을 이끌어 '17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상 타결'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되었다. (주)노루페인트 박연수 노조위원장은 노조를 믿고 따라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노사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행복한 회사'와 '조합원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48

NOROO QUARTERLY MAGAZINE



(재)양호재단 평화의집 장학금 전달



NPCI, 1:1 맞춤형 컬러 트레이닝 과정 오픈

(재)양호재단 평화의집 장학금 전달

(재)양호재단에서는 NOROO그룹의 정성을 모아 2015년 3월 24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보육원 시설 '평화복지재단 평화의집'에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전달된 장학금은 평화의집 입소 아이들의 심리치료 사업과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에는 ㈜노루페인트 김수경 사장, 신준 부사장, 박연수 노조위원장, 홍순철 부위원장, (재)양호재단 한현숙 이사장이 참석하여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NPCI, 1:1 맞춤형 컬러 트레이닝 과정 오픈

색채연구소인 NPCI(NOROO-PANTONE Color Institute)는 이번 5월부터 7월에 걸쳐 1:1 맞춤형 컬러 트레이닝인 컬러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아카데미는 자신의 집의 컬러를 직접 바꾸려는 일반인을 위한 과정과 실무에서 컬러에 대한 활용 능력을 갖추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실무자를 위한 과정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3일에 걸쳐 9시간씩 1:1 맞춤형 컬러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일반인 과정에서는 컬러 기초 이론과 홈인테리어 배색 실습, 우리 집 컬러 계획을 교육하고 배색 액자를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 실무자 과정에서는 컬러 기본 이론과 실무 분야별 배색 실습, 컬러 트렌드 및 컬러 플래닝

이 강의될 계획이다.

일반인 과정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1기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2기(6/23-25), 3기(7/21-23), 4기(8/25-27), 5기(9/22-24), 6기(10/27-29), 7기(11/24-26)까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실무자 과정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1기 수업이 진행되며 2기(6/9-11), 3기(7/7-9), 4기(8/11-13), 5기(9/8-10), 6기(10/13-15), 7기(11/10-12)로 진행될 예정이다.

본 교육은 무료강의와는 차별화된 퀄리티 높은 컬러 교육프로그램으로 실습재료를 포함하여 일반인은 3만원, 실무자는 5만원의 참가비가 있다. 컬러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NPCI 내부 특강 및 해외 컬러 전문가 초청 강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수강생들은 이번 컬러 아카데미를 통해 컬러 감각은 물론, 컬러에 대한 자신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 접수 관련 070-7130-0980 차인아 / 입금관련 02-2273-7411 이다숨)

49

SPRING. 2015.



㈜노루로지넷 이민형 사장, 안양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선출



㈜노루오토코팅, 전직원 한마음 산행 개최

(주)노루로지넷

㈜노루로지넷 이민형 사장, 안양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선출

지난 3월 5일 열린 안양상공회의소 회장단 선거에서 ㈜노루로지넷 이민형 사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안양상공회의소는 상공업의 개선과 발전, 지역 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되어 지난 30여 년 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을 이끌고 국제 협력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등의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또한 주요 현안과 업계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공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이번 회장단 선거에서 이민형 사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되면서 NOROO그룹은 지역 경제의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태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이민형 사장은 안양만안경찰서의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수원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감사로 각각 선임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주)노루오토코팅

㈜노루오토코팅, 전직원 한마음 산행 개최

만물이 소생하는 싱그러운 봄을 맞아 ㈜노루오토코팅에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장안구의 광고산에서 전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산행 대회를 열었다. 상광고버스 종점에서 시작하여 정상인 역새발에서의 촬영과 노루목을 거쳐 다시 종점으로 돌아오는 5km의 두 시간 코스 산행은 등반로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임직원들이 하나로 화합하여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지방 근무자까지 포함한 전직원 참석으로 반가운 얼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사의 공동운명체로서의 모두가 회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장이 되기도 하였다.

70TH ANNIVERSARY NOROO NEW PACKAGE DESIGN

㈜노루페인트는 7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고객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노루페인트는 앞서 2006년과 2010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패키지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리뉴얼된 패키지는 '눈에 읽히는 디자인'이 아닌 '눈에 익는 디자인'으로서, 고유의 패턴과 서체로 NOROO 제품임을 확실히 전달하는 통일감을 갖춘 동시에 컬러 배리에이션으로 용도가 뚜렷이 구분되어 편리합니다.



수성 공통 용기 / 유성 공통 용기

깔끔한 파랑과 부드러운 연두로 수성과 유성 각각의 특징을 구분 지었습니다.

큼직한 서체 디자인으로 NOROO 제품임을 한눈에 각인시킵니다.



크린탄 제품류

전면의 물방울 무늬가 방수용 시스템 도장 제품을 선명히 드러냅니다. 하도, 중도, 상도에 따라 컬러를 달리하여 식별성을 높였습니다.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

경쾌한 팝 아트 디자인이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만의 컬러감을 돋보이게 합니다. 또한 예술적 이미지가 강조되어 DIY용 제품으로 인식되도록 돕습니다.



기타 제품류

NOROO의 다양한 기능성 제품에도 같은 서체 디자인이 적용되어 통일성을 보이되, 다채로운 컬러로 제품의 개별적 기능을 돋보이게 합니다.

Behind Cut

비하인드 컷



㈜노루비케미칼이 고탄성도로 개발과 상품화로 받은 IR52 장영실 상의 상장과 메달입니다. 기술 개발의 이정표를 하나씩 세워가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5 DIY REFORM SHOW〉에서 열린 팬톤페인트 DIY 스쿨은 일찍부터 많은 관람객들이 체험을 신청하여 북적북적했습니다. 팬톤페인트의 뛰어난 색감은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DIY족들에게 안성맞춤이지요!



패밀리 트림에서 만난 귀여운 아기 양입니다. 아기동물들은 모두 귀엽지만, 올해가 양의 해라 그런지 특별히 눈에 가네요~ 보송보송 폭신한 털을 감싼 아기 양처럼, 모든 NOROO인들 역시 행복한 일에만 둘러싸이길 바랍니다~!

